

|어린이, 초등 저학년|

〈똥퍼맨의 열 번째 실수〉

제니퍼 출덴코 지음 | 김예원 옮김 | 보물창고 펴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해야만 하는 복잡한 감정과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아이의 혼란을 섬세하게 포착하면서도, 또래 아이들 사이의 우정과 사랑을 재치 있게 그린 『똥퍼맨의 열 번째 실수』는 최악의 실수 같았던 일들이 반드시 나쁜 결과만을 낳지는 않는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려 준다. 또한 아이에게 주변 어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동시에 “홀로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어린이 독자가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사라진 엄마를 찾기 위한 행크의 귀엽고도 안쓰러운 임기응변들에 웃음 짓던 독자들은 행크의 우여곡절을 따라가며 어느새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읽기 전 활동

1. 내가 알고 있는 ‘실수’의 의미를 적어 보아요.
2. 내가 한 실수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그때 나는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했나요?
3. 표지의 아이들 중 ‘똥퍼맨’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상상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읽기 중 활동

1.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리고 싶은 별명은 무엇인가요?
2. 행크는 왜 새로 다니게 된 맥널티 중학교에서 친구들과 깊이 어울리지 않으려 했을까요?
3. 루엔 할머니가 청소년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2

위너, 워너, 점심과 저녁



엄마는 지난 수요일에 집을 나갔다. 일찍 돌아온다고 했지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엄마는 집에 오지 않았다. 그날은 마침 우리 6학년이 현장 학습을 가는 날이었다. 우리는 창작 공방에 가서 모뎀을 만들고 자동차를 꾸미고 밖에 나타난 새를 터치해 날려 보는 활동을 하기로 했었다.

엄마는 현장 학습 동의서에 빈칸을 채우긴 했지만 서명을 빠뜨렸다. 그래서 엄마 대신 내가 서명했다. 갈 준비는 다 끝났다. 근데 부는 어떡하지?

휴대폰이 있으면 우리 담임인 라플레르 선생님께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었겠지만 나는 휴대폰이 없었다. 그래서 가야 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부와 함께 만화 영화를 보았다.

그게 벌써 일주일 전이었다. 엄마 없이 지내는 일주일은 정말 긴

시간이었다.

우리는 낮에 TV를 보고 화장 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렸다. 밤이 되면 자동차의 불빛이 어두운 거실을 비추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주방에 있는 시계에서 똑딱똑딱 소리가 들렸다. 그럴 때 나는 엄마에게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이 떠올랐다.

아파트 관리인이 가고 나서 부는 TV 앞에 있던 나에게 다가와 앉았다. 부는 자기 크레키에 뿌려진 실밥을 히로 활았고, 나는 막대 아이스크림을 반 정도 먹었다. 보기보다 맛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인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똥퍼 조지, 강제로 쫓겨난 거예요. 내일.'

우리 할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당장 할머니네 집으로 갔을 텐데. 할머니네 집에는 내 침대도 있고, 부가 쓸 아기 침대도 있고, 여러 색깔 사인펜과 그림 그리는 책상까지 있었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만 생겼다.

할머니라면 지금 뭘 하라고 하셨을지 생각해 보았다. 할 일 목록을 작성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할머니는 할 일 목록 쓰는 걸 정말 좋아하셨다. 이게 할머니만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나는 종이를 찾아서 우리 남매가 갈 수 있는 곳을 적어 보았다.

1. 씨제이네 집. 씨제이는 내 절친이다. 씨제이네 집에서 같이 자는 건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데 씨제이의 엄마는 친구들이 너무 자주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번 주에

4. 8장에서, 셀리아 아줌마는 레이 아저씨에게 부에 관해 말합니다. 그때 레이 아저씨는 왜 셀리아 아줌마의 말에 헛기침을 했을까요? 그러자 셀리아 아줌마가 하던 말을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5. 행크와 부는 레이 아저씨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읽은 후 활동

1. 행크는 그림을 잘 그리고 농구를 좋아합니다. 나의 특기와 흥미는 무엇이고,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2. 동생이나 아기를 돌봐 준 경험이 있나요? 행크처럼 매일매일 아이를 돌봐야 한다면 어떨까요? 어른 없이 둘이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3.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어떤 사이인가요?
4. 우리 가족 구성원을 소개해 봅시다.

26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잖아



아저씨와 타데오가 떠난 뒤 우리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기로 했다. 손님인 나타리 고르라고 해서 예전에도 봤던 <코코>를 골랐다. 여기에는 날개 달린 표범이 나온다. 할머니, 부, 마리엘, 마시, 매티와 함께 앉았다. 부가 입은 큰 셔츠가 어깨까지 내려왔다. 동산화도 벗겨졌다. 부는 머리를 내 팔에 기대고 졸음을 이겨 보려고 했지만 곧 잠이 들었다. 아저씨와 CPU가 왔을 때에는 영화가 거의 끝나 가고 있었다. “노느라 힘을 다 썼나 봐.” 잠이 든 부를 보며 아저씨가 말했다. “맞아요.” 내가 대답했다. “이제 가볼까.” 아저씨가 말했다. 마리엘, 마시, 매티, 할머니, 아줌마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우리를

배웅했다. 모두 잠이 든 부의 몸에 뽀포를 해 줬다.

아저씨는 부를 트럭에 앉혔고 나는 카시트에 안전띠를 매었다. CPU는 앞좌석에 있는 자신의 전용 침대에 제빨리 올라왔고 나는 그 옆자리에 앉았다. 아저씨 트럭에는 마치 우리 각자에게 지정된 자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이게 내 일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기분이 씁쓸해졌다.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잖아. 그냥 오늘 하루 아저씨 트럭에 잠시 얹어 탄 것뿐인데.

타데오는 자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 모를 기다. 숙제 걱정만 하면 되니까... 숙제가 삶의 가장 큰 걱정거리일 테니 말이다. 아저씨가 나를 흘깃 쳐다보았다. 내 얼굴에 기분이 고스란히 드러났는지 아저씨가 입을 뗐다.

“나도 마음이 좀 무겁네. 너희 엄마 친구한테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창밖의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불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선명히 보이지만, 불빛 밖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타데오 같은 애들은 밝은 빛 아래에 있다. 나는 그 애들과 다르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트럭을 세웠다.

“너희 엄마를 제일 잘 아는 건 네가 아닐까 싶어. 엄마가 뭘 할지, 뭘 하지 않을지 다 알 거야. 엄마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야.”

“제가 엄마를 못 찾으려면요?”

“그럼 원장님이랑 지내면 되지.”

“할머니는 저를 싫어해요. 할머니가 저희와 계속 함께 지낸다면 그게 기적일 거예요.”